



꺼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

아름다운 축제로 승화

춘향제전위원회(위원장 안숙선)는 24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남원시장과 춘향제전위원, 행사부장 그리고 시민기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6회 춘향제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춘향제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이번 춘향제의 주제는 '춘향!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축제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천년의 사랑이 살아 숨 쉬는 사랑의 도시 남원에서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느끼고,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의 행사가 되도록 남원시민의 꿈과 열정을 담았다.

특유 대표공연예술제 브랜드화

제전위에서는 제86회 춘향제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젊은 세대의 감각 및 놀이 코드를 기반으로 전통과 역사를 융합해 춘향제 특유의 대표 공연예술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브랜드화를 통해 차별성과 고유성을 강화하여, 축제의 진면목을 발휘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체계화된 공연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환상적인 실경무대를 조성하여 실제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젊은 축제화

남녀간의 사랑이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86회 춘향제에서는 사랑분야의 이벤트 및 행사를 확대 편성한다.

우선 연인들을 위한 사랑의 정원을 아끼자기 하고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장미타월을 조성해 5월의 정월과 낭만을 느낄 수 있으며, 연약의 종과 자물쇠를 통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도록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사랑의 이벤트 및 체험으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전국 연인을 대상으로 함께 즐기고 놀 수 있게 축제형 마당을 구성하고, 각 행사장과 연계한 사랑의 미션을 달성하여 연인들에게

남원에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9개 이상의 이벤트(백년해로의 술, 프로포즈, 사랑의 춤추기 등)를 마련한다.

사랑에 대한 이벤트 중 가장 기대가 되는 사랑의 춤은 사랑의 춤을 추면서 연인과의 눈을 마주보고, 손과 손이 닿으면서 아름답고 행복 가득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무대에서 대규모 사랑의 댄스퍼포먼스를 수회 실시할 예정이며, 젊은 세대의 대표 춤으로 자리잡고 더 나아가 전국민과 함께 즐기고 춤 출수 있도록 홍보 및 보급할 계획이다.

행사장 주변 경관 규모화

축제 공간 변화는 광안루원에 대표공연예술제, 춘향시대, 사랑의 이벤트 등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해 축제 몰입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조경 및 포토존을 요천 및 광안루원 정문 광장에 설치, 연인들에게는 낭만적인 프로포즈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 및 관람객들에게는 야간경관 조명과 사랑의 조명물을 설치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종류장터는 가격정찰제 실시, 남원의 농특산품 및 공산품 등 특색있는 먹거리와 볼거리를 바탕으로 문화형 장터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요천둔치로 배치한다.

5월 13일부터 4일간 개최 사랑분야 이벤트 확대 축제 몰입형 공간 조성 다양한 공연예술 펼쳐

이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올해는 개막식 무대를 완결형 무대에서 시행해 전통경관과 하나기될 수 있도록 배경을 조성해 관람객 및 시민들의 호응을 유도하려 한다.

대표적 공연예술제 및 길놀이 춤판 무대 춘향시대가 올해 꼭 놓쳐서 안될 행사이다.

오작교에서 대표적 공연예술제를 메인무대로 구성해 환상과 낭만이 펼쳐지도록 구현 할 것인데, 85회 춘향제에 해의 공연 초청자인 이태리 베로나 및 러시아 브란부스쿠시 민속 오케스트라 등 내방하여 대중성 있는 공연의 장을 만들 것이며, 신규 초청자인 중국 영성시 전통기에단 및 무용단을 초청,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며, 항주시 소백화 월극단 춘향전을 통해 월극이나 난버널 퍼포먼스 형태로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춘향제의 상징인 춘향산발대회는 12일에 행사 초기 추진하여 선발하고, 역대 춘향산발대회의 춘향아들과 함께 춘향이를 길놀이, 포토타임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안숙선 제전위원장은 "춘향제가 3년연속 지역 대표 문화예술 축제에 선정된 것은 우리 남원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금년 춘향제도 전통적인 요소를 잘 살려서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종목을 강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한 차원 높은 춘향제가 될 수 있도록 시 행사관계자와 제전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제전위원들과 행사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의 춘향제가 공무원들과 춘향제전위원회, 춘향문화선원회, 그리고 시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대표 공연예술제에 선정된 것으로 생각한다. 올 춘향제에는 춘향제 특유의 대표예술 공연예술제로 거듭나도록 세계적인 공연 초청을 비롯하여, 젊은이들의 사랑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PAPER COREA

- 사연단지 (15km)
- 새만금 (20km)
- 군산C (5km)
- 군산시청 (0.7km)
- 익산 KTX역 (18km)

한중 FTA 체결 - 새만금 시대 본격 개막!

새만금 시대 명품 복합도시 디 오션시티의 시대가 열린다

새만금 개발의 최대수혜지 군산 디오션시티의 첫 사업 푸르지오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톱 브랜드 명품단지화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교육, 문화, 쇼핑, 주거를 한번에 누릴 수 있는 디오션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새만금의 관문인 군산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디오션시티(The Ocean City)란? 새만금의 배후도시 군산에 들어서는 초대형 명품 복합도시입니다.

- 교육가치 | 최고의 교육시설 집중 배치(유치원 2개교, 초·중 2개교, 중·고 1개교 등)
- 마케팅가치 | 글로벌 자유 무역 중심지인 새만금 개발의 배후 수혜지로 Top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조성되는 명품단지
- 생활가치 | 편리한 쇼핑·문화시설 및 유망형 스트리트몰 조성(예정)
- 자연가치 | 근린공원(1개)과 어린이공원(2개) 등 압도적 녹지로 건강 및 힐링 단지 조성(예정)
- 입지가치 | 군산C 및 새만금, 군산시청, 군산역 인접으로 전격적 사용발달의 현실화

큰 변화의 바람이 불다

2016년 봄
e편한세상 분양 예정!

새만금 시대 명품 복합도시 디 오션시티